



**『제7차 수산혁신특별위원회』
회의 결과**

1. 개요

□ 일 시 : 2022. 3. 31.(목), 14:00~16:00 / 농특위 대회의실(영상 병행)

□ 참석자

- (수산혁신특별위원회) 류정곤 위원장, 마창모·박상우·조용준
나승진·남수만·이성우·김봉태·위지연·이운수 위원 등 총 10명
(사무국) 홍근형 팀장, 박진규 전문관

□ 주요 내용

- 2022년도 수산혁신특위 소분과(디지털/인력) 운영계획 보고
-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계획 검토
- 수산혁신특위 2기 위원 위촉장 전달, 향후 운영 일정 협의 등

2. 주요 회의 결과

□ 수산혁신특위 디지털소분과 운영 관련 논의 결과

- 안전 마련 방법
 - 디지털소분과 위원의 역할 강화(주제 발표 등)와 함께 정책연구 용역(4월 추진) 및 토론회 등을 병행하여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 마련
- 안전 논의 방향
 - 정부정책/디지털기술과 수산현장과의 괴리감 등 실태를 파악하고,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 마련 필요
 - * 영세 어업인 및 산업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, 자체적인 자본 여력과 행정 처리 여건 등이 열악하여 기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
 - 해수부, 농림부, 과기부 등의 각 사업과별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정책이 있으며, 어업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타 산업분야 성공사례 벤치마킹 중

요

- 어업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수요 발굴이 최우선이며, 어떠한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, 사업 시행을 확대할 것인지 정책적 대안 마련 필요
- * 어업인 고령화 추세에서 급변하는 디지털화에 대한 소외 방지 대책, 디지털 전문 신규인력 양성 및 산업지원 방안 등도 논의 주제로 포함 필요

□ 수산혁신특위 인력소분과 운영 관련 논의 결과

- 안전 마련 방법
 - 핵심 의제와 관련, 해수부 담당자, 민간 전문가, 어업현장 관계자 중심의 토론회 개최, 이슈페이퍼 작성 등을 통해 안전 마련
- 안전 논의 방향
 - 수산 현장 방문을 통한 인력부족 실태를 파악하고, 국내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외에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방안 필요
 - *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, 외국인선원제 외에 단기체류자 또는 계절근로자 활용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음. 특히 육상양식장 및 가공업체에서 활용 가능함
 - 현행 근로환경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우므로, 현 상황에서 내·외국인 신규인력 유입 확대 방안(제도적 지원책 등) 모색에 중점을 둘 것

□ 수산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관련 검토 결과

- 부처 관계자, 수산현장 인력관리 담당자 외에 법제도 관련 전문가도 토론자로 섭외 필요
-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인력소분과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, 논의의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

3. 향후 일정

- (4.21) ‘수산인력 확보’ 전문가 토론회 겸 제1차 인력소분과 개최
- *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안전 논의방향 설정 등

○ (4월 중) 제1차 디지털소분과 개최

* 디지털 분야 정책현황 관련 소분과장 발표, 정책연구용역 과업내용 검토 등